■ 우리당 최악의 참패

정계개편 싸고 대립 · 분열 예고

與 '민주 통합·친노 신당' 분화 위기
한나라 대선주자 중심 '기싸움' 펼듯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전국단위 선거로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짙었던 5·31 지방선거가 열린우리당의 완패와 한나라당의 대승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주요 대권주자들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세 대결'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지방선거의 후폭풍은 여야를 뛰어 넘어 정계개편의 '쓰나미'로 확대되면서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열린우리당은 당장 지도부 일괄 사퇴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완패가 예상됐다지만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성난 민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계개편 방법과 방향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 계파간 노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동영 의장이 퇴진하면서 '민주세력 통합론'과 함께 '참여정부 책임론'을 함께 거론한다면 열린우리당은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구 민주당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호남세력은 현재의 체제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며 '민주세력 대연합론'을 강력하게 추진할 전망인 반면, 친노(親盧) 영남세력은 호남에 국한시키는 '서부벨트 구축 전략'이 지역주의 구도 극복에 한계가 있고, 개혁정체성 상실로 이어진다고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노 영남세력이 독자노선을 모색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등을 기점으로 신당 창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 당내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 대승으로 주가가 급상승한 박근혜 대표와 지지율 정체에서 탈피하기 위한 이명박 서울시장간의 '기싸움'은 피할 수 없게됐다. 특히 박 대표는 피습사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과 고건 전 총리를 제치고 예비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대선 가도를 염두에 두고 당내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도 지난달 29일 주한 외국대사 초청 만찬에서 "나는 곧 일자리를 잃지만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새 일자리를 찾는지에 관한 뉴스를 들을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당내 '빅3' 가운데 하나인 손학규 경기지사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회창 전 총재도 정치권의 관심 대상이다.

민주당은 고건 전 총리 등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쥐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세력 통합론의 방법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통합할 생각이 없다"는 한화갑 대표와 일부 현역의원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건 전 총리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몸값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고 전 총리는 당분간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으며 활동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리는 특정 정당에 편입되기 보다는 신당 창당을 통한 정계개편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달 31일 당사 회의실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지방선거 압승에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 당직자들이 여의도 당사에서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 우세 출구 조사 결과 방송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광주·전남 완승 의미

향후 정계개편 주도 가능성

우리당은 '대통합' 내세워 활로 모색할 듯

광주·전남지역 5·3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완승을 거둔 것은 물론 전북지역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호남 맹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추후 정계개편 및 대선 정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열린우리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정계개편 및 대선정국을 앞두고 '민주세력 대통합'을 내세우며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 없이는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가가 급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고건 전 총리와의 접촉을 강화하며 정계개편 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중식, 최인기, 이낙연 의원 등이 고건 전 총리와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분간 외형적으로 여권과 정치적 각을 세우며 열린우리당의 내부 분란을 유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민주세력 대통합에 뜻이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창조적 파괴를 내세우며 민주세력 대연합의 깃발을 들고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중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이 정권 창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며 "추후 정계개편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는 호남민심이 대선 정국을 이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정권 재창출을 명분으로 민주세력 대연합에 적극 나서며 추후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집권 여당에 대한 싸늘한 지역 민심은 열린우리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희망연대 21'을 이끌고 있는 양형일 의원 등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당내 민주세력 연합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그동안 중앙 정치무대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데다 결속력도 떨어져 당내 논의과정에서의 결정적 역할 수행 여부는 미지수다.

양형일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우선 당내에서 민주세력 대통합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호남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건 "한나라 승리아닌 여당 완패"

"새 정치 패러다임 요구"

차기 대권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고건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5·3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여당의 완패"라고 평가했다.

고 전 총리는 논평에서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야당이) 여당에 이처럼 참패를 안겨준 적은 없다. 집권 여당의 자성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정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과도하게 개입, 주도해 많은 폐해를 남겼다"면서 "생활정치, 민생정치, 풀뿌리 주민자치를 되살리는 지방선거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의 실종, 지역주의 편승 등으로 귀결된 이번 지방선거는 나에게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케 만든다"면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대 총선서 한나라 공천받아 '금배지'
재선 마다하고 정계은퇴 '클린 정치인'

민선 11년 첫 40대 서울시장

오세훈 당선자

민선 지방자치 도입 11년만에 40대 서울시장이 탄생했다. 오세훈(45·한나라당) 서울시장 당선자는 법조인 출신으로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결국 한나라당 공천으로 강남을에 출마, 금배지를 달며 정계에 입문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주도하고 당의 위기마다 인적쇄신을 주창하는 등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치인의 대표주자로 이미지를 굳혔다.

2004년 1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따놓은 당상'으로 여겨지던 재선을 마다하고 전격 정계은퇴를 선언해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이러한 '클린 정치인'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2년4개월만인 지난 4월 9일 시장 출마를 전격선언, 52일만에 파죽지세로 서울시청에 입성한 것이다.

특히 당내 경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단기필마로 출마, 앞서 달려가던 당내 경선주자들을 제치고, 그 여세를 몰아 본선의 경쟁후보까지 따라잡아 승리를 굳히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본선에 접어들어 환경운동 경력 등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앞세워 첫 여성 법무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일으킨 이른바 '강풍(康風)'과 '여풍'(女風)을 잠재우며 예상보다 훨씬 큰 격차로 당선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귀공자풍의 오 당선자도 초등학교 시절 달동네에 살며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던 때가 많을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한 과거를 갖고 있다.

고려대 법대 졸업후 1년 뒤인 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시절 식중독으로 기말고사를 망쳐 1년 '낙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